

문·이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이문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Lee, Moonbok. (2014). A study of th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for integrating the liberal arts and the sciences. *Modern English Education*, 15(3), 277-295.

This paper aims to lay out a curriculum blueprint for developing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for the integration of the Liberal Arts and the Sciences, and report on some suggestions for its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First,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 should be adopted as “an *established* variety of English” among the three options proposed by Matsuda and Friedrich (2011). Second, learning goals in the new English curriculum should reflect its some connections to social studies, math, science, the arts, and other disciplines. Third, achievement standards for English in the curriculum should be restructured to consider its constituents as well as its presentational format. Fourth, the scope of the subjects of communication and vocabulary level are discussed. Last, teaching and learning, and assessment methods that focus upon students’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in class are addres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achievement standards/
영어과 교육과정/국제어로서의 영어/성취기준]

I. 서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급속한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적자원이 지식기반의 주체이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중심의 지식전달 위주의 20세기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인 ‘Education 1.0’, 교육의 책무성과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한 ‘Education 2.0’, 그리고 창의, 협력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21세기 열린 교육 교육시스템 구현을 위한 ‘Education 3.0’으로 교육혁신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비롯한 교육 선진국들은 일찍이 2000년을 전후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 창조를 위해 학문간 융·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미래 사회에서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깊이 인식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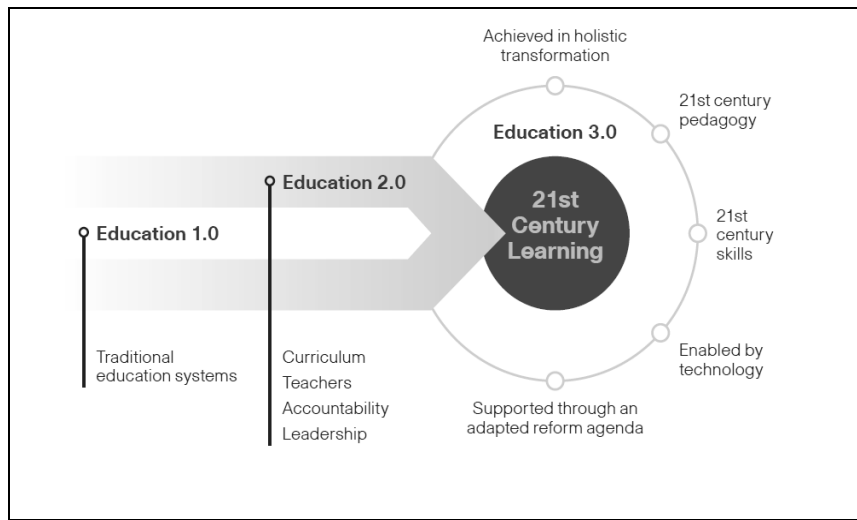


그림 1 교육1.0 - 교육3.0(Cisco System, 2010, p. 22)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학습자는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학교 혹은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받고 있다. 최근 OECD 및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실생활 적용 능력을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Trilling과 Fadel(2009)은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을 언급하였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 2007)는 모국어 소통 능력, 외국어 능력, 수학적 능력과 과학, 기술 분야의 기초 능력, 디지털 능력, 사회·시민 능력, 기업가 정신, 문화적 이해와 표현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꼽았다. 김영철, 윤중혁, 김미숙, 신현석과 노석준(2006)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기초능력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적응력,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과 김혜진(2008)은 미래사회 한국인의 핵심역량으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미디어정보 문해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기초(전문) 학습능력으로 꼽았으며, 개개 학습자 혹은 사회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라기 보다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인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미래 핵심역량을 지닌 학습자는 협동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효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적응력과 창의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정보와 미디어 및 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능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ICT 활용 능력, 협동심,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래교육에서 지식 창조의 메가트렌드인 학문간 융·복합 담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영어의 위상을 고려할 때 영어과 교육과정도 예외 없이 이러한 국가·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일찍이 Littlejohn(1998)은 이런 변화의 중대성을 간파하고 ‘미래교육과정(future curriculum)’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Seow(2006)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관련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와 글로벌 트렌드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경향은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메가트렌드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은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계열 통합의 성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 소양이 반영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어느 영역으로 진로 또는 진학을 결정하든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학생의 인문·사회·과학 관련 기초 소양 함양,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별 학습량 적정화,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이 가능한 여건 조성, 그리고 학생의 잠재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또는 진로과정 개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영어과 핵심역량을 탐색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문·이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및 체제 그리고 제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이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의 틀을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체제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문·이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

1. 성격

영어는 국제어로서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널리 확장되고 발전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이후 EIL)라는 용어는 모든 국제적인 환경에서 균일하게 사용되는 언어로서보다는 국제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영어가 수행하는 기능으로서의 개념으로 정의된다(Friedrich & Matsuda, 2010). 이는 하나의 특정한 영어가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어(lingua franca)로써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부인하는 개념이다. 세계의 다양한 영어들(World Englishes, WEs)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어로서의 영어(EIL)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심 개념이다. 학습자들이 원어민(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등)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는 전제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맞으며,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영어와 문화만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Matsuda & Friedrich, 2011; Sharifian, 2009). Alptekin(2002)은 원어민 화자를 준거로 설정된 의사소통 능력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수 모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영어를 국가·문화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수용하는 새로운 교수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Tomlinson(2005)은 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표준영국영어와 일반미국영어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성 가능한 모델도 아니며,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비원어민과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Brown(1991)은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영어,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활동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교수·학습 관점에서 소위 표준영어를 가르치는 것, 원어민 화자를 목표로 하는 교수 모델이 영어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Matsuda와 Friedrich(2011)는 국제어로서 영어의 성격에 따라 교수·학습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능한 선택은 어떤 특정한 영어를 모든 국제적 환경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McArthur(1987)가 제안한 ‘세계표준영어’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교사들이 미래의 영어 학습자들이 어떤 다른 영어 사용자들을 만나더라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아이디어임에 틀림 없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교수·학습 자료를 보편화하고 평가를 단일화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영어들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스러운 현실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특정한 영어를 교수·학습 모델로 선택한다는 것은 국제어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며, 또한 초국가적 언어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영어 위계가 등장함으로써 학습자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어 사용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선택은 학습자 자신이 사용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인데, 예컨대, ‘Indian English’, ‘Singaporean English’ 등을 교수·학습 모델로 인정하는 것이다.

표 1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성격에 따른 영어 교수·학습 모델 선택

구분	장점	단점
세계 공용 영어	· 모든 국제적 환경에서 특정 영어 사용, 즉 ‘세계표준영어’ 사용 · 교수 자료 보편화 · 평가 단순화	· 국제어로서의 영어(EIL) 현실 반영 못함 · 초국가적 영어 탄생으로 인한 다른 영어 화자 간 불평등 초래
학습자 자신이 사용하는 영어	· 학습자 사용 영어 선택 (예, Indian English, Singaporean English 등) · 언어 사용자의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	· 토착화된 영어 · 영어로서의 정통성 문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	· 영어 현실 반영 및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 가능 · 통용성 확보	· 기존의 주요 영어사용 국가의 영어 권력 유지(미국, 영국, 등)

이것은 Hino가 언급한 소위 “탈 영·미국화된 국제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2009, p. 107)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영어 사용자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미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토착화된 영어와 그것에 대한 영어로서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를 지배적인 교수·학습 모델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어로서의 영어는 다양한 국제적 환경에서 뿐 아니라 다른 사용 영역, 예컨대, 기업계, 학계, 연예 등에서 비교적 쉽게 수용되며, 이미 보편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교수·학습 모델로 선택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자들은 기존의 주요 영어 사용국의 영어 권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2. 목표

새로운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들이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능숙한 영어 사용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급별 성취 목표를 제시하며, 아울러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 배경인 문·이과 통합 취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영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미국 연방 정부가 제시한 외국어 교육 목표인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 “5Cs”는 바람직한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그림 2 참조). 미국 연방 정부는 자국 학생들이 21 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C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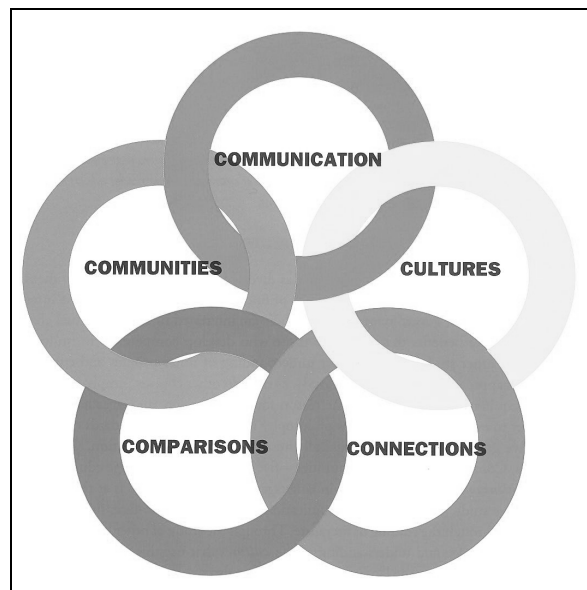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연방 정부 외국어 교육 5대 목표

다섯 가지 목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언어학습의 핵심적인 목표로서, 이 능력은 면대면으로 상대방과 의사소통 하거나 글로써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다. 문화는 외국어와 분리하여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문화의 이해는 외국어 학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언어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 지식은 목표언어 능력에 필수적 요소이다. 목표언어 유창성은 그 언어와 관련 있는 문화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연계는 외국어를 일반 교과내용과 연결하

여 배움으로써 교육적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의 유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이과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외국어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하고, 읽고, 의사소통 할 ‘무엇’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곧 외국어 학습 ‘내용’으로 연결된다. 외국어 학습에서 배우는 내용은 역사, 지리, 사회, 수학, 과학, 예술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모든 세상사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목표인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융·복합적 사고력 함양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이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수학, 과학, 예술 교과 등과 연계해 학습에 의미 있는 맥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 보다 더 흥미를 갖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에서는 외국어는 제각기 다른 언어체계와 문화를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외국어를 배우면서 모국어가지고 있는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언어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지구촌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이 외국어를 통한 국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2에 제시된 외국어 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는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외국어 교수·학습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교육 목표를 크게 정의적, 언어적, 문화적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학문간 융·복합을 통해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인문·과학의 통합을 구현해 내느냐가 핵심 과제일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급별 교육목표 설정 시 문·이과 통합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목표 중 문·이과 통합과 관련 있는 ‘연계’ 개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외국어를 일반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교육적 경험을 넓히고 심화시킴으로써 외국어 학습의 유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어 교과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와 인성,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건전한 도덕관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나아가 국제적 안목과 세계인으로서의 협동심과 소양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3. 내용

1)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교수·학습의 내용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영어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준이다. 즉, 영어 교과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s)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to know) 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어야’(to be able to do)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 기능별로 어떤 성취기준을 구성하고 성취기준 간 어떻게 체계적 위계를 설정하는가는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성취기준과 관련된 네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핵심성취기준 개념을 도입한다. 영어 교과의 핵심 기능과 핵심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영어 교과의 가장 중요한 역량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분량의 과다로 인한 ‘진도빠기식’ 수업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고, 많은 양을 피상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지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핵심성취기준은 학년별로 중복 편성하여 누적식 학습을 유도하되, 일부 성취기준은 심화로 구성하여 학년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찬빈 외 6인(2013)이 제시한 핵심성취기준의 예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자들이 핵심성취기준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주제 파악 및 줄거리 파악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으므로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며, 언어기능별 핵심성취기준 간 논리적 위계화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성취기준이다. 둘째, 언어사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고려한 필수적인 성취기준이며, 다른 성취기준과 차별이 되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활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성취기준이다.

둘째, 성취기준을 기능통합형 구분하여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4가지 언어기능을 균형 있게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외국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한다. 미국의 국가수준 외국어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의사소통 (Interpersonal), 언어해독(Interpretive), 발표(Presentational)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 아래에 기능별 정의, 적용 언어 기능, 문화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Brown(2001)이 지적한 것처럼, 언어를 가르칠 때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을 분리해서 가르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으로 가르칠 때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4가지 기능을 명시적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고, 기능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외국어 교수·학습의 본질을 반영할 수 있으며, 최근 외국어의 성취기준 구성 요소 및 제시 방식에 있어 학문적 경향에도 부합한다.

표 2

중학교 듣기영역 성취기준과 핵심성취기준 예시(임찬빈 외 6인, 2013, p. 46)

교육과정내용	성취기준	핵심 성취 기준
①중심내용을 파악한다	①-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①-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①-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의도나 목적을 파악한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

셋째, 성취기준 위계화 방식을 체계화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성취기준의 위계를 기술하는 용어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기인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의 주제 범주를 자기 주변의 주제, 일상생활 관련 주제, 친숙한 일반적 주제, 일반적 주제, 다양한/전문적 주제 등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관련 주제의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 체계에서 각 기술어(descriptor)의 내용 범주가 너무 넓고 그 경계도 명료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 나아가 현재 제시된 성취기준은 난이도 측면에서도 ‘간단한’, ‘조금 복잡한’, ‘복잡한’, ‘매우 복잡한’과 같은 정도 부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학년간, 학교급간 학습내용의 수준을 구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성취기준에 대한 교과서 집필자들의 해석이 각기 달라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교과서별로 큰 편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곧바로 학습량 증대로 이어져 7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학습량 적정화의 걸림돌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과제 및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구체화된 ‘can-do statement’ 형식의 성취기준 기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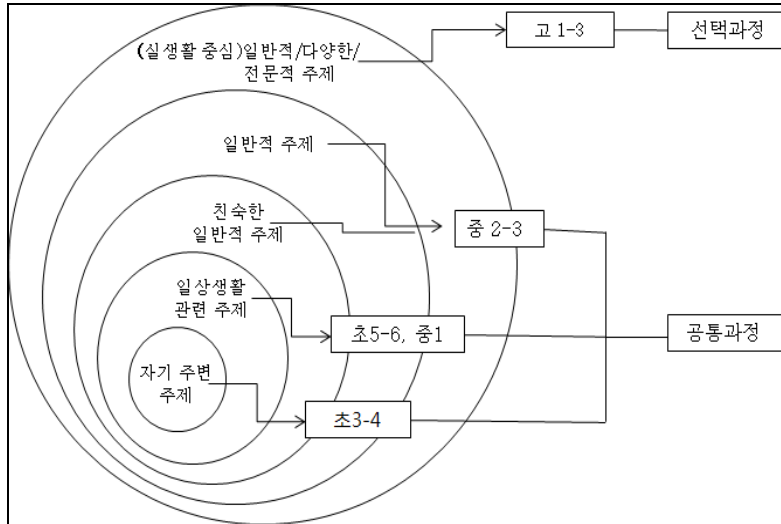


그림 3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술 체계

넷째, 학교급별로 도달해야 할 성취수준 목표 설정을 도입한다. 성취기준은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 오하이오주 외국어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학년군별 벤치마크 성취기준, 학년별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 체계는 우리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구성 체계 연구에 가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학교급별로 도달해야 할 수준을 먼저 설정하고 학교급별 성취수준이 의미하는 바를 핵심기준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성취수준 기술은 핵심기준을 통해만 들어지고, 핵심기준은 다시 구체적인 성취기준으로 세분화 되어 나타나며, 성취수준을 기술하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 소재 및 어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간교과/범교과와 관련된 소재를 통합하여 다루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어를 일반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교육적 경험을 넓힘으로써 외국어 학습의 유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소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지식보다는 기능 습득을 위주로 하는 영어 교과의 성격상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소재나 그 범주는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의 성취기준 기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루는 주제의 범주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소재의 난이도가 어렵게 설정되어 있다. 영어 과목은 특성상 교수·학습 내용이 소재의 난이도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급 혹은 언어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소재(내용) 범위를

제시해 주는 것이 교사들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펜실바니아주, 등은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과 함께 외국어 능숙도 따른 관련 소재도 함께 제시하여 교사들과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표 3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 권장 어휘수 및 과목별 어휘수

2011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초·중학교 권장 학습 어휘 수	구분	과목 및 권장 학습 어휘 수
	기본	기초영어: 1,300 낱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수 	일반	실용영어 I: 1,600 낱말 이내
		실용영어 II: 2,000 낱말 이내
		실용영어회화: 1,200 낱말 이내
		실용영어독해작문: 1,800 낱말 이내
<p>초등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학년군 : 240 낱말 내외 - 5~6 학년군 : 260 낱말 내외 (누계 : 500 낱말 내외) 		
<p>중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학년군 : 750 낱말 내외 (총계 : 1,250 낱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 : 5% 범위 이내에서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의미하며, 기본어휘목록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80% 이상 학습할 것을 권장함 • 기본어휘목록 제시 어휘수는 2,988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영어: 2,800 낱말 이내 심화영어회화 I: 1,800 낱말 심화영어회화 II: 2,000 낱말 심화영어독해 I: 3,300 낱말 심화영어독해 II: 3,500 낱말 심화영어작문: 2,300 낱말

출처: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또 다른 고려 사항은 권장 어휘수 조정 문제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목록에서 제시한 어휘수는 총 2,988개이며, 이중 사용권장 어휘수를 최소 8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밖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높은 어휘 자율사용 한도가 교과서 간 어휘수 편차로 이어지고, 다시 교과서 간 난이도 편차로 연결되어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병민(2014)의 한국 영어교과서 렉사일 지수 분석에 따르면, 중등 영어 교과서의 렉사일 지수가 학년마다 100~150L씩 상승하고 고등학교 3학년 렉사일 지수가 946~1,026L로 미국의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어휘 수준으로 집필된 교과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사교육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어휘 목록에서 사용권장 어휘수를 현재 80%에서 최대한(약 90% 이상) 상향 조정하여 어휘 자율사용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교과서 간 어휘수 편차로 인한 교과서 내용(지문)의 난이도 편차를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1) 교수·학습 방법

학교 현장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 중심의 수업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교사의 설명을 통한 지식 전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1세기 교육의 핵심 화두인 창의, 융합 교육을 지향한다면, 교사 중심의 설명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협동, 참여 수업이다. 참여와 협력 학습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 전달식의 학교수업을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체험 수업 등을 장려하고 관련된 교수법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또 배운 영어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협력 수업은 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과 같은 개방성 및 유연성 등을 배양할 수 있다.

셋째, 수준별, 개별화 수업을 지향한다. 개인의 현재 수준, 적성, 진로, 흥미 등이 각기 다르다는 점,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습자가 같은 반에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화 지도(differentiated instruction)를 지향 한다. 넷째, 인지적 학습과정의 정의적 학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2013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가장 우수한 편이지만,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교생활 만족도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다섯째,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외국어 교수·학습에 통합되어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정보통신기술 시대에는 누구나 스마트 기기를 교수·학습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개별화 학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4 SMART 교육 개념

출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교과부 2011.6.29)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형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교육은 자기 주도적이고, 정형화된 교과 지식 중심에서 체험 기반으로 흥미롭게,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자료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외국어 교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외국어 교수·학습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중요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사의 미디어 및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영어교육에서도 창의, 협력,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21세기 열린 교육 교육시스템 구현을 위한 ‘Education 3.0’ 시대를 열기 위해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 교수·학습의 교육혁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평가

영어평가는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진단하여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지필평가보다는 말하기, 쓰기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도록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강조되는 지식 또는 역량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평가의 내용 및 방법도 변화하여야 한다. 미래의 핵심역량을 구현하는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 학교는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된 성취기준에 학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본래의 기

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에서는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보다는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를 중시하는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성평가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학습 과정 중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진단 성격의 평가로서 평가의 결과가 다음 학습이나 지도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배제하고 평가의 학습능력 진단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명확히 학습하여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둬으로써 영어학습에 있어 기초학습능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말하기, 쓰기 평가가 변화해야 한다. 말하기와 쓰기 능력은 지필고사를 통한 간접 평가 보다는 학생이 직접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수행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형태의 직접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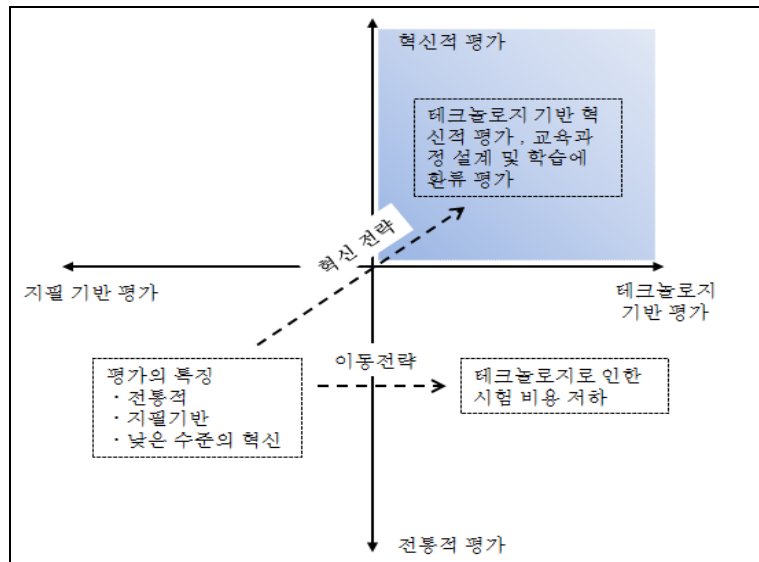


그림 5 전통적 평가와 혁신적 평가(Ripley, 2009, p. 93)

Ripley(2009)은 미래의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를 그림 5와 같이 제시하면서, 특히 컴퓨터 기반 평가는 전통적인 지필 평가방식에서 혁신적 평가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평가 관리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에 공감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지필 평가 방식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평가 방식 개발을 목표로 ATC21S(Assessment &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박은아, 이문복, 이상하, 최혁준, 서민희, 2012에서 재인용). ATC21S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협동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통신기술(ICT) 이해능력을 꼽았다. ATC21S 연구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교육 평가 전문가들은 21세기 교육은 지식 위주의 지필평가 방식을 인터넷 기반 문제해결능력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더 나아가 대학입시와 같은 학생선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ICT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의 영어 말하기, 쓰기 수행평가 가능하고 머지 않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고등학교 선택과목 구성 체제 재구조화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2011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의 구성 체제는 ‘기본-일반-심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일반계 교과에서 필요에 따라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선택과목 구성 체제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및 진로와 필요 등을 고려한 교과목 이수 범위와 수준 설정, 둘째, 국가수준시험체제(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와 선택과목의 연계, 선택과목 개설 논리 및 위계 설정을 통한 보통·전문교과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일반계 고교에서도 전문계고 과목을 필요에 따라 개설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표 4

문·이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재구조화(안)

2011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안)	비고
기본	기초 영어	필수 기초영어, 영어 I, II	
일반	실용영어 I,II, 영어 I,II 실용영어회화, 영어회화, 실용영어독해작문, 영어독해작문	실용영어 I,II, 실용영어회화, 선택 영어회화, 실용영어독해작문, 영어독해작문	
심화	심화영어, 심화영어회화 I,II, 심화 영어I,II, 심화영어작문		최소화 혹은 폐지

선택교육 과정별 교과목의 성격을 살펴보면, 기본과정에서 기초영어 과목은 중학교까지의 공통교육과정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과목으로 영어와 수학 교과에 도입되었다. 일반과정(8개 과목)은 중학교에서 배양한 영어능력을 기반으로 실용 영어능력 및 기초학술 영어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과목군으로 각각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과목군(4개 과목)은 기초 학문영역에서 기본적인 영어사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군으로, 실용영어 과목군(4개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 배양을 위한 과목군으로, 각각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 3급과 연계된다. 심화과정(6개 과목)에서는 전문

계열 수준의 심화된 영어능력 개발을 위한 과목군으로, 일반계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전문계 수준의 심화된 영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1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육과정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연계인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의 수능영어 미연계를 발표하여 이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새로 도입한 인터넷 기반의 첨단 평가시스템인 국가영어능력시험(2,3급)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방향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계 고교에 전문교과 개설의 논리도 퇴색되었으며, 현행 선택교육과정에서 심화 과정에 있는 전문교과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여, 일반 과목을 ‘필수-선택’ 트랙으로 구분하여 학습량 적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에 부응하면서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및 진로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21세기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일과 학습이 통합되고,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급속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학습자는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학교 혹은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최근 OECD 및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 지식의 활용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실생활 적용 능력을 ‘핵심역량’(key competence 혹은 core competenc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핵심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성격을 국제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영어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영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능숙한 영어 사용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학교급별 성취 목표를 제시하며, 아울러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 배경인 문·이과 통합 취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또한 성취기준의 체계화 및 적정화, 문·이과 통합에 맞는 소재 유형 및 어휘수 조정,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및 평가, 고등학교 선택과목 구성 체제의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제 우리나라

영어교육도 교사중심의 지식전달 위주의 20세기 전통적인 ‘Education 1.0형’에서 벗어나, 창의, 융합, 협력, 자기주도성 등 21세기 열린 교육 교육시스템이 추구하는 ‘Education 3.0형’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로 교육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6.29). 스마트교육 추진전략(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교과부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 김영철, 윤종혁, 김미숙, 신현석, 노석준. (2006). *창의적 인재 양성과 효율적 교육체제 구축*. 서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박은아, 이문복, 이상하, 최혁준, 서민희. (2012).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평가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연구보고 PRE 2012-5-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 (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II): 핵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소 설정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C 2008-7-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병민. (2014). 수능 영어 평가 방식,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육개발원. 제64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임찬빈, 이혜원, 주형미, 이영아, 이윤, 윤영애, 권영애.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영어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연구보고 CRC 2013-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lptekin, C. (2002). Toward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LT. *ELT Journal*, 56(1), 57-64.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Longman.
- Brown, H. D. (1991). TESOL at twenty-five: What are issues? *TESOL Quarterly*, 25, 245-260.
- Cisco Systems. (2010). The learning society. Retrieved June 10, 2014,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isco.com/web/about/citizenship/socioeconomic/docs/Learning_Society_WhitePaper.pdf.
- European Commission. (2007).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Luxembourg.
- Friedrich, P., & Matsuda, A. (2010). When five words are not enough: A conceptual and

- terminological discussion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ternational Multilingual Research Journal*, 4(1), 20-30.
- Hino, N. (2009). The teaching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n Japan: an answer to the dilemma of indigenous values and global needs in the expanding circle. *AILA Review*, 22, 103-119.
- Littlejohn, A. (1998). Language teaching for the Millennium. *English Teaching Professional*, 8, 3-5.
- Matsuda, A., & Friedrich, P. (2011).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 curriculum blueprint. *World Englishes*, 30(3), 332-344.
- McArthur, T. (1987). The English languages? *English Today*, 3(3), 9-13.
- OECD. (2013). *PISA 2012 Results in Focus: What 15-year-olds know and what they can do with what they know*. Retrieved June 10, 2014,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 Ripley, M. (2009). Transformational computer-based testing. In F. Scheuermann & J. Bjornsson (Eds.), *The transition to computer-based assessment: New approaches to skill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for large-scale testing* (pp. 92-98).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 Seow, A. (2006). Language curriculum development: Moving with the times. Retrieved June 3, 201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edisdat.ied.edu.hk/pubarch/b15907314/full_paper/887732374.pdf.
- Sharifian, F. (2009).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Perspectives and pedagogical issues*. Canada: Multilingual Matters.
- Tomlinson, B. (2005). The future for ELT materials in Asia.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2(2), 5-13.
- Trilling, B., & Fadel, C. (2009). *21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이문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784)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Tel: (02) 3704-3699
Email: himoon@kice.re.kr

Received 15 June 2014

Revised 6 August 2014

Accepted 20 August 2014